

□ 국제외의 참가기

제5차 세계 물 포럼 참가기

최 중 대

(jdchoi@kangwon.ac.kr)

KCID 부회장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세계 물 포럼(World Water Forum, WWF)은 물과 관련된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포럼으로 World Water Council(WWC)이 개최국의 조직위원회와 협조하여 매 3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WWF는 1997년에 모로코의 Marrakech에서 시작하며, 제2차부터 4차까지의 WWF는 네덜란드의 헤이그, 일본의 교토, 그리고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이번 제5차 WWF는 터키 이스탄불의 Sutluce Congress and Cultural Center와 그 주변에서 2009년

3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개최되었다. WWF는 물 문제를 세계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물 문제에 관한 범지구적 협력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WWF는 물과 관련된 정부 및 UN 기관과 단체, 정치인, 시민운동그룹 사이의 연대를 모색하고, 물 안보를 성취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제5차 세계 물 포럼(WWF5)은 "Bridging divides for water"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주제(thematic), 지역(regional), 정치(political), 단체(major groups) 발표 등 4개의 분야로 구분되었다. 포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발표 분야의 골격은 2007년 3월 세계의 30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주제발표분야는 (1) Global change and risk management, (2) Advancing human development and MDGs, (3) Managing and



WWF5에 참가한 우리분야 대표들

protecting water resources and their supply to meet human and environmental needs, (4) Governance and management, (5) Finance, (6) Education, knowledge and capacity development 등 6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23개의 topic과 115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지역발표 분야는 아프리카, 아시아-퍼시픽, 유럽, 아메리카, 지중해 연안, 터키, 아랍 등으로 구분하여 준비되었다. 정치발표 분야는 국가원수급 포럼, 시장 및 성장포럼, 국회의원 포럼, 그리고 고위공직자 포럼 등으로 구분되어 준비되었다. 그리고 단체발표의 일부는 고위전문직 패널을 구성하여 (1) Water and disaster, (2)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3) Financing on water, (4) Sanitation, (5) Water, food and energy 등에 관한 국제적인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한 발표와 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단체발표는 side events와 civil society and the major groups of Agenda 21, water fair, learning center, youth forum, 그리고 children's forum 등을 주관하였다. 제5차 세계 물 포럼은 각 주제별 발표와 토론 외에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었다. 물과 관련된 UN의 많은 기관이 UN pavilion을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각 기관별 홍보와 자료를 배포하였다. 임시가설 천막으로 준비한 전시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가관을 개설하고 각 국의 물관련 정책을 홍보하였다. 또한 산업체에서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제품을 전시하고 홍보활동을 하였다. 국가, UN, 그리고 기업체의 전시관에서는 정책이나 기술개발에 유용한 자료와 제품관련 홍보자료 등을 무상으로 많이 배포하였기 때문에 평소에는 구할 수 없는 다양한 자료를 많이 구할 수 있었다.

제5차 세계 물 포럼은 약 150개국에서 33,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약 20여명이 국가원수급 대표를 비롯하여, 장관, 성장, 시장, 국회의원, 외교관, UN 기관 대표 등 고위직의 참여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승수 국무총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진형 위원장,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그리고 환경부 차관, OECD와 주변국 대사, 다수의 중앙과 지방정부의 고위공무원, 조용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이완호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장 연구기관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이번 물 포럼에는 한국 물 포럼의 임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정부의 고위공무원들과 함께 2015년 제7차 세계 물 포럼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정보를 수집하였다. 필자는 3월 17일에 농림수산식품부의 김일환 과장, 이행우 사무관, 한국농어촌공사의 박광수 새만금개발처장, 해외사업팀 유전용 팀장(인도네시아 주재), 사업계획실 고광돈(차장), 환경지질처 최광준(과장) 등과 함께 국무총리가 주재한 다과회에 참석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홍보활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필자는 춘천 물포럼의 조직위원장으로 춘천 물포럼과



한국관 앞에서의 필자

여타 NGO 참여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NGO 활동을 알리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WWC에서 주관하는 WWF의 역사는 15년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은 매우 크다. 필자는 2006년 멕시코에서 열린 제4차 WWF에도 참석하였다. 제4차 WWF에서는 발표세션이 그렇게 많지 않아 한 곳의 convention center에서 발표와 전시행사를 모두 치룰 수 있었으나, 제5차 WWF에서는 주관 convention center의 규모가 작기도 했지만 행사규모가 워낙 커서 발표와 전시 등을 여러 곳에서 분산하였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싶어 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적지 않은 발품을 팔아야 했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션은 미리 가서 자리를 잡지 않으면 빈자리가 없어 발표장에 입장조차 할 수 없었다.

필자가 주로 참여한 세션은 기후변화와 물 관리, 농업과 농촌의 물 관리, 그리고 농업용수 혹은 관개 배수 분야와 관련된 세션이었다. 필자가 참석한 세션 2.4.1. multiple uses and functions of water services는 FAO와 INWEPF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IFAD, MUSgroup, IRC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물의

다목적 이용을 주장하기 위한 세션으로, 다섯개 기관에서 세션을 운영하다 보니 발표도 각 기관별로 1명씩 다섯 개의 주제에 대하여 각 기관의 의견을 대변하는 형식이 되었다. 발표는 10분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이행우 사무관이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과 INWEPF의 자료를 발표하였다.

“Special session on effective use of water in agriculture” 세션은 멕시코, 중국 그리고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자신들의 관개현황, 법 및 제도, 관개계획과 투자계획, 유지관리 활동 등을 각 국가별로 1시간씩 발표하고 토론하는 세션이었다. 세션에서는 발표 내용이 기술적인 자료보다는 정책, 정치, 경제 및 금융분야로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발표자의 면면을 보아도 경제나 금융분야 혹은 UN 산하기관의 전문가들이 많아 물과 관련된 수리, 수문 및 환경학자들이 활용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자료들이 많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WWF가 진행될수록 더욱 더 심화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무대는 물을 위한 장소로 준비되었으나 배우는 물 전문가 보다는 금융과 경제전문가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로 변모되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제5차 WWF의 개최지인 터키의 이스탄불은 동서양 문물교류의 중심지이자 역사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유물과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다. 또한 하나의 도시가 일부는 유럽에 또 다른 일부는 아시아에 포함된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이다. 유럽쪽에 6백만명이 그리고 아시아쪽에 8백만명 등 1천4백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한

도시이다. 이와 같이 큰 도시를 양분하고 있는 32km의 보스포러스 해협에는 단 2개의 현수교만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매우 심한 교통체증을 감내해야 한다.

터키는 제5차 세계 물포럼을 나름대로 잘 준비했겠지만 참석자의 입장에서는 현장등록을 비롯하여 컨벤션센터의 협소로 인한 분산개최 등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우리도 이제 2014년 ICID 총회와 2015년 제7차 WWF를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들 회의를 개최한다면 정말로 멋있게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WWF의 핵심주제는 안전한 용수 공급, 먹거리 생산, 그리고 위생과 관련된 물 문제 등 3개의 주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일부의 주제는 홍수와 가뭄관리, 국가간 물 문제 등도 있지만 이들도 크게 보면 위의 3개 주제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 3개

주제 중 2개, 즉, 안전한 식수공급과 먹거리 생산은 우리 농업토목과 매우 밀접한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야이다. WWF는 선진국의 물 문제를 다루는 포럼은 아니다. WWF는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물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포럼이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역할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는 압력이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때에 농촌용수의 개발과 관리를 통한 식량생산과 식수공급 분야에 독보적인 이론과 실무지식을 잘 갖추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가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국위의 선양은 물론 우리 전문가의 국제화와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베이스로 세계 물 포럼(WWF)을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